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50호(99/2/25)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 '국가인권위원회' 한 고비 넘겼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문제가 중대한 고비를 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법무부가 '인권법 설치법안'을 발표한 이래 만 5개월 동안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법무부 안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됨으로 법무부의 의도는 좌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추위는 국민회의 측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안을 마련할 것과 밀실에서 논의가 아닌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회의 측에서 무등기법인 혹은 여타의 형태로 인권위를 민간기구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국민회의안 역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추위는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 형태의 국가인권위원회'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24일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까지 2월에 들어와 국가인권위원회 논의가 법무부 측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열린 당정협의도 법무부의 고집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무부 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비서관의 뉴욕 방문 행적을 추적한 결과, 박비서관은 법무부 안의 개요를 들고 가서 이에 대해 국제인권전문가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 보고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법무부의 수정안으로 기우는 듯하였고, 국민회의도 이에 부화뇌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추위에서는 19일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1백여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박주선 비서관의 뉴욕방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청와대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공추위에서는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국민과 대통령을 희롱한 박주선 비서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면서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다급한 상황들이 연이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대포님과 배경내씨가 불철주야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법무부 안은 좌절시켰지만,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국가인권위 설치 때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 / 업 / 보 / 고

(99년 1월 넷째 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

## 국가보안법 개정 가시권에

-폐지운동 전략 고민중-

2월 24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여당측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측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7조 위반 결정 시행 조치를 통보해야 하고, 국제앰네스티가 3월부터 3개월간 한국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북한 주민 접촉이 늘어나면서 남북교류협력법과 마찰을 일으키는 점도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랑방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전략을 깊이 고민중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7조의 삭제운동을 앞세우면서도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를 위한 투쟁을 이 중적으로 전개할 것 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랑방은 자유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보법 철폐운

동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3월초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는 20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준법서약제 철폐 결의대회', 23일 조계사에서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철폐를 향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초 국보법 철폐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들을 모아 깊이 있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올해의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향과 이를 담보할 조직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유권위원회' 가동, 국보·행형 사업 중심

자유권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자유권위원회가 2월 2일 첫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자유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대표를 비롯해 8명에 이릅니다. 참가하고 있는 이들을 역할 분담별로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김정희, 강미주/ 감옥의 인권; 엄주현/ 보안관찰법; 대표, 김정희/ 불심검문; 정재욱 /법률 학습 및 북한인권; 김동한 박사 등입니다. 이외에도 유점열, 임태훈씨도 결합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 사업에는 당분간 사무국장이 함께 하게 됩니다.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행형법 개정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매주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법률 등 자유권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합니다.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며, 자유권위원회에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법무부가 행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은 기존의 감옥 팀을 개편하여 행형법 민간단체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서대표, 엄주현씨(사랑방), 김형태 변호사, 오창익씨(천주교인권위), 최정학, 문준영씨와(민주법연) 박찬운 변호사, 이승호 교수(건국대), 출소자 현정덕씨, 현직 교도관 2명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송보호감호소 최근 출소자 유득형씨가 감호소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찾아와 유씨의 문제를 계기로 청송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고민중입니다. 또, 법무부가 제안했던 감옥 방문 문제는 법무부 측의 불성실한 모습 때문에 아직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 사회권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팀을 꾸려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의 각 분야별 조사계획을 작성하면서 사회권 관련 주제별 학습도 진행합니다. 오는 27일 오후 4시에는 '칼 마르크스의 권리의 정치이론'이란 주제로 소토론회도 엽니다.

□ 청소년 인권교재 『인권교육의 길잡이』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책값은 9천원이고, 3월초부터는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성공사'에서 안기부 등이 합동신문 과정 등에서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폭로했던 탈북 주민들이 민변의 임영화 변호사의 소장 준비 끝에 지난 2월 1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김대중 정부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중심 주제별로 살피는 기획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지면을 개선하고, 시평 필진을 개편하기 위해 섭외중입니다. 달라지는 하루소식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는 3월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인권영화제에서는 3회 영화제 상영 작품의 배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급 승낙을 받은 작품으로는 <갈릴리아서의 결혼>, <행진>,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등 6편입니다. 그러나, 아직 <칠레전투> 등의 작품은 완전하게 배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가급적 많은 작품들의 배급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권영화제 기획담당 김정아씨가 2월 8일부터 상임활동가가 되기 위한 연수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도서출판 사람생각 대표이자 편집실장 염규홍씨가 지난 1월 28일 두 번째로 득남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찬빈입니다.

□ 사회권위원회의 이주영씨가 해외연수를 위해 오는 3월 2일 제네바로 출국합니다. 이주영씨는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열리는 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관하고, 5월에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담 10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도 참가하고, 6월 중순경 귀국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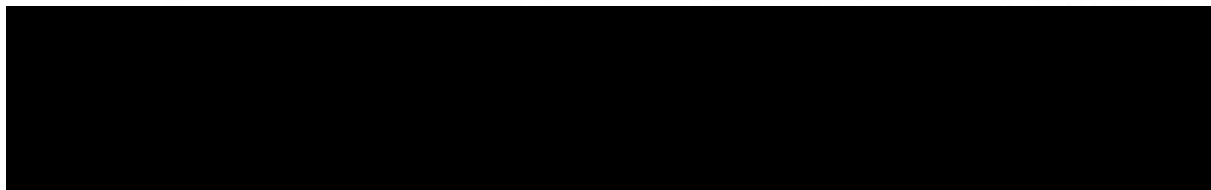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http://www.jinbo.net/~freedom>

**99년 1월 재정보고**  
(99년 1월 16일 - 99년 2월 15일)

전기이월: - 4,836,385원

| 수 입          |                    | 지 출          |                    |
|--------------|--------------------|--------------|--------------------|
| 회비           | 2,217,800          | 활동비          | 5,082,000          |
| 구독료          | 2,811,500          | 발송비          | 702,610            |
| 사업수익         |                    | 사무비품비        | 305,550            |
| 자료 복사·판매     | 971,910            | 사무실유지비       | 1,149,860          |
| 강연·교육·원고     | 628,600            | 간행물구독료       | 341,000            |
| 후원금          | 940,000            | 통신·전화비       | 1,134,020          |
| 재분배재단지원금     | 3,426,623          | 사무기기         | 96,500             |
| 시민운동지원기금     | 3,200,000          | 복사비          | 900,000            |
| 기타           | 39,910             | 출장비          | 92,500             |
|              |                    | 연대사업비        | 160,000            |
|              |                    | 식비           | 285,164            |
|              |                    | 기타           | 311,170            |
| <b>수입총액:</b> | <b>14,236,343원</b> | <b>지출총액:</b> | <b>10,560,374원</b> |
| <b>최종결산:</b> | <b>-1,160,416원</b> |              |                    |

<12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 박찬운 변호사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인권운동사랑방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 ▣ [Redacted] 인세 29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 [Redacted] 원회에서 인권주일에 모금한 후원금 880,000원을 상근활동가 떡값으로 주셨습니다.
- ▣ [Redacted] 에 '98년 인권운동사랑방 중간사업보고서'를 보내 5천 마르크인 3,426,623원을 받았습니다. 98년 4월 [Redacted] 인권운동사랑방 전체 사업을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1만 마르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 ▣ 99년 상반기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제출했던 'IMF와 인권'이 채택되어 3,200,000원을 받았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